

치위생(학)과 학생의 치과위생사 양성 교육과정에 관한 인식

양승경^{1*}, 권순복²

¹대구산업정보대학 치위생과, ²경북대학교 치위생과

The Awareness of Dental Hygiene Students on the Dental Hygiene Curriculums.

Seung-Kyeong Yang^{1*} and Soon-Bok Kwon²

¹Dept. of Dental Hygiene, Daegu Polytechnic College University

²Dept. of Dental Hygiene, Kyungbuk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치과위생사 양성 교육과정 요소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2009년 4월부터 6월까지 치위생(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9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PASW Statistic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목표, 교육내용 선정, 평가에 있어 중부권이 가장 높게 수도권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학사학위 과정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육내용 조직은 중부권이 가장 높게 호남권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학사학위 과정이 전문학사 학위과정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요소별로 살펴보면, 교육목표 요소는 직업교육, 도덕적 윤리적 요소에서 높게, 창의적 측면에서 낮게 나타났다. 교육내용선정 요소는 학습가능성에서 높게 내용의 타당성과 관련성에서 낮게 나타났다. 교육내용조직 요소는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평가 요소는 학교평가 준거에서 높게, 국가시험 방법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wareness of dental hygiene students on the components of the dental hygiene curriculum.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934 dental hygiene students, on whom a survey was conducted in April and Jun, 2009.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he statistical package PASW 18.0.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The students from the midsection of the nation put the highest value on educational objectives, selection of what to teach and evaluation, and the students from the metropolitan area set the lowest value on those components. The students who took junior college courses took a better view of those components than those who took college courses. In terms of the organization of what to teach, the students from the midsection of the nation rated it highest, and the students from the Honam area rated it lowest. And those who took college courses took a little better view of it than the students who took junior college courses. Among the components of the curriculum, the educational objective factor was rated higher in terms of vocational education, morality and ethics, and that was rated lower in terms of creativity. The selection of what to teach was rated higher in terms of learning possibility and was rated lower in terms of content validity and relevance. The organization of what to teach was rated highest in terms of continuity, followed by sequence and integration. The educational evaluation factor was rated higher in the area of school evaluation and was rated lowest in the area of national examinations.

Key Words : Dental Hygiene Curriculums

1. 서론

오늘날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과 정보화 시

대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팽창되어 감에 따라 표준화된 지식과 기술의 습득에만 치중하기보다는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실제적 문제 해결력을 요구하는 지

*교신저자 : 양승경(ysk2809@hanmail.net)

접수일 11년 12월 20일

수정일 (1차 11년 12월 30일, 2차 12년 01월 04일)

게재확정일 12년 01월 05일

식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변화하는 환경과 이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며, 급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간을 기르기 위해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 정보를 분석, 종합할 수 있는 능력 등의 함양이 강조되어야한다[1]. 현대사회의 학교 교육은 산업사회에 걸맞게 조직되고 운영되어 왔으나 새로운 탈현대적 패러다임을 요청하며 이에 맞추어 재구조화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2].

그러나 치과위생사 양성 교육은 학제연장으로 체계적이고 내실화된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임상실습의 위탁교육, 실습장비의 부족, 교수진의 부족으로 인해 치위생 교육이 만족스럽지 않음을 볼 수 있다[3]. 전문적 기술의 부족과 단순한 기능적인 일의 반복[4], 단순한 보조 업무 위주의 실습 등이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못한 원인[5]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치과조무사와 업무내용의 중복 등과 같이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확보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6]. 또한 치위생 교육이 실현되는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의 전반을 이루는 강의를 통한 교수-학습법 또한 교수자 중심의 수동적 접근법이며, 학습자의 이해와 학습 진도에 관한 피드백을 거의 하지 못하거나 지연되어 제시 될 뿐이고 자기주도 학습을 하지 않아 전문인으로서 새로운 원리, 기술 등을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이 대두되고 있다[7].

그 원인으로 각 대학의 독자적인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육목표의 미비한 정립이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제고와 업무영역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는 한계적이라는 것이다[8]. 또한 응급처치 식으로 이루어진 교육과정 개발은 치과대학의 축소적인 구조로 교과가 산재되어 있으며, 강의식 수업이 갖는 한계적인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9]. 평가에서 또한 시험과목에 대한 교과목 즉, 교과를 중심으로 분류되어 있어 면허 취득 후 졸업생들은 임상적 실무능력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제고와 업무영역확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교육목표의 정립과 교육과정의 표준화가 시급하다[8]. 이를 위해서는 결정 주체 중 학습자의 적성, 진로, 능력에 관한 교육 과정적 요구에 있어 기본적인 파악과 사회로부터 유래하는 교육의 목표,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적 합일성과 기술적 효용성이 높은 교과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므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10]. 따라서 치과위생사 양성 교육기관은 교수 자신들의 요구와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치위생 교육에 대한 연구는 이에 통합교육과정의

탐색[11]이나 문제중심 학습법에 관한 연구[12,13]를 통해 강의식 학습법의 단점을 보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교수-학습법에 대한 방안,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치위생학의 교육표준화에 대한 연구[14], 국가시험에 관한 연구[15], 학사 치과위생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8] 등과 같이 치위생 교육 전반에 기인하여 치위생(학)의 학문적 기반과 표준화된 교육과정 개발의 기반을 이루고자 끊임없이 노력되어 왔지만, 치과위생사 양성 교육과정 요소에 대한 학제와 지역적 편차에 대한 후속적인 구체적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자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치과위생사 양성 교육과정 즉 교육목표, 교육내용선정, 교육내용조직, 평가에 관한 요소들을 학제별, 권역별로 각각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교육과정 개선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치위생과 학생의 선정기준은 2009년 3월 기준 전국 67개 치과위생사 양성 교육기관 중 2006년 이전 학과가 개설되어 최종 학년이 있는 53개 대학(교) 치위생(학)과 학생 중 권역별 유층표집방법에 의하여 23개 대학의 치위생(학)과 2010년 졸업예정인 3·4학년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학생은 전문학사학위과정 790명(84.6%), 학사 학위과정 144명(15.4%)으로 총 934명(100%)이다. 권역은 4개 권역으로 수도권, 중부권, 경상권, 호남권으로 분류하였으며,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소재 9개 350명(37.4%), 중부권은 충남, 충북, 대전 소재 4개 192명(20.6%), 경상권은 경남, 경북, 부산, 울산, 대구 소재 5개 194명(20.8%), 호남권은 전남, 전북, 광주, 제주에 소재 5개 198명(21.2%)이다.

2.2 연구방법

2009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연구자가 직·간접 방문 및 우편, E-mail을 통하여 연구의 목적에 관한 설명 후 설문지를 배부·실시 후 회수된 질문지 중 연구목적에 부적절하게 응답하거나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934부를 통계 처리하였다.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요소는 교육목표가 추구하고 있는 학문적, 직업적·사회적, 개인적 목적[16]에 대한 이론을 기초로 구성하였으며, Cronbach's α 는 0.899로 나타났다.

다. 교육내용 선정준거요인은 학습자의 학습흥미와 학습 가능성, 교과 내용의 유의미성과 내용의 타당성, 사회적 유용성[17-21]등을 기초로 구성했으며, Cronbach's α 는 0.878로 나타났다. 교육내용 조직준거요인 측정도구는 계열성·계속성·통합성[17]을 기초로 구성했으며, Cronbach's α 는 0.860로 나타났다. 교육평가 요인은 평가내용과 평가 준거[21], 교육평가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평가방법 [17,22]에 기초했으며, Cronbach's α 는 0.893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배경은 집단별로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과정 구성요소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했으며, 권역은 one-way ANOVA, 학제는 t-test를 이용하여 $p < 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교육목표요소에 관한 인식

교육목표요소에 관한 인식은 직업교육요소에서 평균 3.53 ± 0.624 로 중부권에서 평균 3.65 ± 0.561 로 가장 높았으며, 경상권(3.61 ± 0.639), 수도권(3.46 ± 0.635)과 호남권(3.46 ± 0.628)로 나타났다($p < 0.001$). 학제에 따라서는 지적 능력개발 요소에서 3년제 학생보다 4년제 학생이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p < 0.01$). 그 밖의 요소에서는 3년제가 4년제에 비해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표 1].

[표 1] 교육목표요소에 관한 인식

[Table 1] The factor of educational objectives

교육목표 요소	권역 학제	M±SD	Total	p
지적능력 개발	수도권	3.26±0.591	3.29±0.547	0.003
	중부권	3.41±0.511		
	경상권	3.32±0.517		
	호남권	3.22±0.509		
	3년	3.29±0.530		
	4년	3.32±0.631		
직업교육	수도권	3.46±0.635	3.53±0.624	0.001
	중부권	3.65±0.561		

	경상권	3.61±0.639			
	호남권	3.46±0.628			
	3년	3.54±0.619			0.250
	4년	3.48±0.652			
대인관계 이해	수도권	3.18±0.607	3.21±0.573	0.111	
	중부권	3.30±0.593			
	경상권	3.21±0.555			
	호남권	3.19±0.496			
	3년	3.21±0.565			0.166
	4년	3.21±0.617			
사회문화화	수도권	3.34±0.687	3.37±0.643	0.489	
	중부권	3.39±0.620			
	경상권	3.42±0.593			
	호남권	3.35±0.630			
	3년	3.37±0.638			0.424
	4년	3.35±0.687			
도덕적 윤리적 성격	수도권	3.41±0.705	3.43±0.680	0.188	
	중부권	3.53±0.637			
	경상권	3.42±0.698			
	호남권	3.40±0.653			
	3년	3.42±0.669			0.211
	4년	3.48±0.738			
창의적 측면	수도권	3.01±0.805	3.05±0.735	0.670	
	중부권	3.08±0.631			
	경상권	3.06±0.701			
	호남권	3.08±0.731			
	3년	3.07±0.734			0.883
	4년	2.96±0.731			
자아실현	수도권	3.25±0.701	3.27±0.647	0.312	
	중부권	3.35±0.649			
	경상권	3.26±0.592			
	호남권	3.25±0.594			
	3년	3.26±0.649			0.689
	4년	3.34±0.634			

3.2 교육내용선정요소에 관한 인식

교육내용선정요소에 관한 인식은 학습가능성 요소에서 평균 3.27 ± 0.650 로 중부권에서 평균 3.43 ± 0.567 로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에서 평균 3.15 ± 0.672 로 가장 낮았다 ($p < 0.001$). 내용의 중요성 요소에 관한 인식은 평균 3.24 ± 0.661 로 중부권에서 평균 3.34 ± 0.662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에서 평균 3.16 ± 0.681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p < 0.05$). 학제별로는 3년제가 4년제에 비해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

대[표 2].

[표 2] 교육내용선정요소에 관한 인식

[Table 2] The selection factor of educational content

교육내용 선정요소	권역 학제	M±SD	Total	p
학습가능성	수도권	3.15±0.672	3.27±0.650	0.000
	중부권	3.43±0.567		
	경상권	3.38±0.651		
	호남권	3.22±0.641		
	3년	3.29±0.644		
	4년	3.15±0.671		
내용의 중요성	수도권	3.16±0.681	3.24±0.661	0.018
	중부권	3.34±0.662		
	경상권	3.28±0.636		
	호남권	3.23±0.635		
	3년	3.26±0.663		
	4년	3.18±1.089		
내용의 타당성	수도권	3.10±0.752	3.15±0.691	0.123
	중부권	3.25±0.646		
	경상권	3.16±0.675		
	호남권	3.14±0.626		
	3년	3.16±0.685		
	4년	3.11±0.722		
내용의 유용성	수도권	3.12±0.681	3.18±0.632	0.088
	중부권	3.25±0.575		
	경상권	3.21±0.588		
	호남권	3.20±0.632		
	3년	3.20±0.633		
	4년	3.09±0.625		
내용의 관련성	수도권	3.11±0.704	3.15±0.657	0.096
	중부권	3.25±0.576		
	경상권	3.14±0.653		
	호남권	3.14±0.644		
	3년	3.16±0.668		
	4년	3.10±0.596		

3.3 교육내용조직요소에 관한 인식

교육내용조직요소에 관한 인식은 계속성의 요소가 평균3.42±0.602로 중부권(3.52±0.559)에서 가장 높았으며, 호남권(3.33±0.532)에서 가장 낮았다(p<0.05). 통합성 요소는 평균3.19±0.603로 중부권(3.33±0.542)에서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3.12±0.654)에서 가장 낮았다(p<0.01). 학제별로는 계속성과 계열성 요소에서 4년제가 3년제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통합성요소는 3년제 학생이 4년제에 비해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표 3].

[표 3] 교육내용조직요소에 관한 인식

[Table 3] The organization factor of educational content

교육내용 조직요소	권역 학제	M±SD	Total	p
계속성	수도권	3.41±0.663	3.42±0.602	0.014
	중부권	3.52±0.559		
	경상권	3.45±0.584		
	호남권	3.33±0.532		
	3년	3.41±0.595		
	4년	3.50±0.625		
계열성	수도권	3.16±0.608	3.20±0.564	0.203
	중부권	3.26±0.540		
	경상권	3.23±0.531		
	호남권	3.19±0.534		
	3년	3.20±0.566		
	4년	3.21±0.559		
통합성	수도권	3.12±0.654	3.19±0.603	0.002
	중부권	3.33±0.542		
	경상권	3.20±0.551		
	호남권	3.15±0.597		
	3년	3.19±0.598		
	4년	3.15±0.630		

3.4 교육평가요소에 관한 인식

교육평가요소에 관한 인식은 국가시험방법에 관한 인식이 평균3.12±0.701로 중부권(3.21±0.624)에서 가장 높게, 수도권(3.00±0.802)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01). 국가시험내용요소는 평균3.17±0.633로 경상권(3.27±0.715)에서 가장 높게, 수도권(3.08±0.693)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1). 국가시험준거요소는 평균3.19±0.740로 중부권(3.29±0.678)에서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3.08±0.83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1). 학제별로는 3년제가 4년제에 비해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표 4].

[표 4] 교육평가요소에 관한 인식
[Table 4] The educational evaluation factor

평가요소	권역 학제	M±SD	Total	p
학교평가 내용	수도권	3.17±0.665	3.22±0.612	0.079
	중부권	3.30±0.589		
	경상권	3.25±0.563		
	호남권	3.18±0.572		
	3년	3.23±0.608		0.322
	4년	3.16±0.633		
학교평가 준거	수도권	3.21±0.772	3.25±0.746	0.648
	중부권	3.29±0.797		
	경상권	3.27±0.706		
	호남권	3.25±0.688		
	3년	3.26±0.907		0.736
	4년	3.26±0.759		
학교평가 방법	수도권	3.04±0.733	3.10±0.658	0.087
	중부권	3.16±0.637		
	경상권	3.17±0.590		
	호남권	3.08±0.591		
	3년	3.12±0.650		0.234
	4년	3.02±0.696		
국가시험 내용	수도권	3.08±0.693	3.17±0.633	0.003
	중부권	3.24±0.590		
	경상권	3.27±0.617		
	호남권	3.19±0.555		
	3년	3.20±0.633		0.373
	4년	3.04±0.617		
국가시험 준거	수도권	3.08±0.833	3.19±0.740	0.003
	중부권	3.29±0.678		
	경상권	3.27±0.715		
	호남권	3.23±0.618		
	3년	3.23±0.741		0.140
	4년	3.00±0.710		
국가시험 방법	수도권	3.00±0.802	3.12±0.701	0.000
	중부권	3.21±0.624		
	경상권	3.20±0.642		
	호남권	3.19±0.599		
	3년	3.17±0.689		0.399
	4년	2.90±0.729		

3.5 치과위생사 양성 교육과정에 관한 인식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치과위생사 양성 교육과정에 관한 인식은 교육목표요소에서 평균3.31±0.4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p<0.05), 교육내용조직요소(p<0.05), 교

육내용선정요소(p<0.01), 교육평가요소(p<0.01) 순으로 나타났는데[표 5].

[표 5] 치과위생사 양성 교육과정에 관한 인식
[Table 5] The Awareness on the Dental Hygiene Curriculums.

	권역 학제	M±SD	Total	p
교육목표	수도권	3.27±0.528	3.31±0.499	0.042
	중부권	3.39±0.481		
	경상권	3.33±0.490		
	호남권	3.28±0.464		
	3년	3.31±0.494		0.287
	4년	3.29±0.550		
교육내용 선정	수도권	3.13±0.603	3.20±0.552	0.004
	중부권	3.30±0.488		
	경상권	3.23±0.527		
	호남권	3.18±0.523		
	3년	3.21±0.553		0.685
	4년	3.12±0.545		
교육내용 조직	수도권	3.23±0.567	3.27±0.518	0.011
	중부권	3.37±0.482		
	경상권	3.29±0.480		
	호남권	3.22±0.486		
	3년	3.27±0.516		0.757
	4년	3.29±0.519		
평가	수도권	3.10±0.619	3.18±0.568	0.003
	중부권	3.26±0.561		
	경상권	3.24±0.541		
	호남권	3.19±0.485		
	3년	3.20±0.574		0.126
	4년	3.06±0.518		

4. 논의 및 결론

의료를 둘러싼 현재의 사회적 환경은 경쟁이 증가되고 있고 의료 소비자들도 변화하며 의료 자체도 급변하고 있으며, 의료사회의 환경은 의료시장의 개방추세와 글로벌 시대를 향한 보다 전문화된 치과위생사의 공급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치과위생사의 양적인 변화, 학제의 변화, 역할에 따른 근무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위생사 양성 교육과정은 이런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치위생 학생의 임상실습이나 신입 치과위생사들의 정체감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더 나아가 치과위생사의

이직,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책임의식[23]의 본질적인 문제로의 접근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전문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생들의 능력에 맞는 치위생(학) 교육과정에 대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연구와 함께 학생지도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24]. 전문적인 치과위생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양질의 구강보건서비스의 제공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치과위생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일차적으로 현실성 있는 교육과정과 피교육자의 전공분야에 대한 만족도를 충족시키도록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25].

이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고자 연구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치과위생사 양성 교육과정에서 교육목표, 교육내용 조직, 교육내용 선정, 평가 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나타냈다.

먼저 교육목표에 관한 인식은 중부권, 경상권, 호남권, 수도권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p < 0.05$),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학사 학위과정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요소별로는 직업교육($p < 0.001$), 도덕적·윤리적 측면, 사회문화화, 지적능력개발($p < 0.01$), 자아실현, 창의적 측면 순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직업교육과정은 일반적인 교육과정의 한 형태로 일반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철학의 바탕에 그 기본적인 근거를 두어야 하며, 특히 직업교육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노작과 실용을 중시하는 실학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또한 교육의 대상은 바로 인간이며, 그는 독특하고 복잡한 개성을 지닌 하나의 유기체이다. 따라서 직업교육은 일을 수행하는 개체로서 인간의 심리에 관한 학문에도 그 기초를 두어야 하며, 직업교육과정도 이러한 학습자들의 심리적 기초 위에서 구성되어야 한다[26]. 그러나 미국 치과위생사 양성 교육과정과의 비교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전문적 이론과 기술 습득을 중심으로 조사되어 지적능력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14]. 본 연구에서 또한 이 부분에 지역적인 편차를 보이고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고 있다. 따라서 단편적인 술식만을 제공하던 보조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포괄적인 구강위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적 능력과 기술이 필요하다. 이는 구강위생 전문가로서 치과위생사에게 요구되는 지적 능력과 기술로 지식, 비판적, 창조적 사고능력이며 임상적 의사결정 기술로 개인적, 사회적 요인을 평가할 수 있는 사회과학적 지식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응용력, 중

합력, 판단력을 배양하여야 한다[14]. 이러한 관점에서 치위생과정에 대해 주목할 만하다. 치위생과정은 사고 모형으로서 핵심 역량 중심의 학습경험을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포괄적인 임상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고 비판적 사고 성향과 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치위생과정 기반의 임상 치위생 교육을 통해 대인관계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27]고 제시하고 있다. 치과의사와 함께 구강보건 향상과 구강위생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치과위생의 중요한 일을 수행해야 하는 치과위생사에게는 스스로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성장에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8], 치과의 일원으로 환자, 치과의사, 스태프 등과 협력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서 협동정신, 대인관계술, 의사소통술을 배양[14]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며, 치위생 목표의 다각적 측면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의 구체적인 제시와 변화의 노력이 모색되어야겠다. 또한 일련의 과정은 자아를 이해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아를 개발하며,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자아실현이라는 목적에 도달되므로 끊임없는 자기개발의 과정을 이룩해 나가 자신이 내린 결정과 그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함의적 차원에서 더욱 강조되어야겠다.

둘째, 교육내용 선정에 대한 인식도는 중부권, 경상권, 호남권, 수도권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p < 0.01$), 학사 학위과정에 비해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요소별로는 학습가능성($p < 0.001$), 내용의 중요성($p < 0.05$), 내용의 유용성, 내용의 타당성 및 관련성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내용의 학습에 대한 가능성은 교육내용이나 학습 경험을 선정함에 있어서 학습자가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학습자에게 학습이 가능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능력 정도에 맞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의 개인적 필요, 목적, 흥미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면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없어 효과적인 학습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인간은 모든 자신이 하는 일에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 욕구는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것으로 그 충족과 좌절은 후속되는 행동, 더 나아가 인성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내용은 학생들의 능력수준에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29]. 그러나 지나치게 교육내용이 학습자 중심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중요성이나 타당성 근거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26]. 내용의 타당성은 교육내용이 교육목표 달성과 관련해서 참되고 진실 된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특히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교육내용의 타당성

문제가 심각하다. 즉 어떤 분야의 교육내용은 그것이 학습자의 손에 닿기도 전에 무의미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타당성 기준은 교육과정 내용을 선정할 당시 검증하여야 하나 원래 타당하다고 판단된 내용이 그 타당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그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준거는 내용과 목표의 간계성에 의해서 측정될 수 있다. 즉 선정된 내용은 교육과정의 목표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교육과정 속에 교과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교육과정 결정 주체들의 요구가 계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 학습 가능성 요소는 가장 높은 반면 내용의 타당성 및 관련성은 가장 낮은 요소로 나타남으로서 이를 위한 균형 있는 개선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적 관련성은 ‘사회적 가치’, ‘사회발전’, ‘인간발달’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학교 기능 중의 하나는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일이다. 사회적 관련성 준거에 따라 사회의 모든 영역에 적합한 내용이 교육내용에 선정되어야 한다. 즉, 학습자가 치위생계의 전반적인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있어 임상치과위생사와 공중구강보건 업무 수행에 유용한 교육내용으로, 치과위생사의 새로운 업무 개발을 위한 내용 선정이 고려되어야겠다.

셋째, 교육내용 조직에 대한 결과는 중부권, 경상권, 수도권, 호남권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5$). 학사 학위과정이 전문학사 학위과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요소별로는 계속성($p<0.05$), 계열성, 통합성($p<0.01$) 순으로 나타났다.

계속성의 원리는 교육내용으로서 어떤 내용은 한 번의 학습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육내용은 적절한 반복을 통하여 학습의 누적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들이므로 학년 증가에 따라 계속적으로 학습하도록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어떤 내용을 어느 기간까지 반복해서 학습하도록 조직해야 하는가의 ‘기간’ 설정 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니며 심층적인 연구를 요한다[30]. 김 [31]은 치과위생사가 예방치위와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연구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외국사례와 비교해 볼 때 치과위생사를 처음 양성한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의 경우와 같이 전문성을 갖춘 통합교육과정의 시행이 필요함과 치과위생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산재되어 있는 치과진료보조 업무 교과를 통합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현행 치과위생사 양성 교육과정에 있어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수행되어지는 활동영역을 중심으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통합하여야 하며, 본 연구 결과와 같이 권역에 따

른 편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교과의 개발이 고려되어야 한다.

더불어 통합성은 계열성의 확보 즉 교육내용의 적정화로 이루어지며 교육내용의 양과 난이도 문제와 관련된다 [32]. 이는 내용의 학년별 범위와 계열성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이와 함께 교사 운용조건, 교사 양성조건, 교육과정 조건의 범주 안에서 구현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개발 할 수 있도록[30], 무엇보다도 융통성 있는 수업시간 계획이 필요하다. 독특한 경험과 전문직 지식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교수(teaching)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교육과정 조직의 균형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는 집단교수(team teaching)체제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평가에 대한 인식은 중부권, 경상권, 호남권, 수도권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p<0.01$),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학사 학위과정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소별로는 학교평가 준거, 학교평가 내용, 국가시험 준거($p<0.01$), 국가시험 내용($p<0.05$), 국가시험 방법($p<0.001$), 학교평가 방법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는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이 치과위생사의 여러 측면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현행 치과위생사 교육과정 속에 학교평가에 있어서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사료되어 진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국가시험의 개선과 함께 학교평가에서 평가의 내용과 평가의 방법적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 등[14]의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국, 호주, 영국, 덴마크, 캐나다의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에 있어 교과가 아닌 치과위생사 업무별 평가방법으로의 출제를 고려해야겠다. 국가필기시험에서는 약 20-30%정도의 출제문항이 치과를 방문한 실제 환자의 전신 및 구강상태를 조사한 Case를 응시자에게 제시한 후 그 환자에 대한 다양한 시험문항으로의 점진적인 전향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실기평가 방법은 전문가로서의 충분한 적용능력이 있는지를 국가시험으로 평가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한계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변화가 모색되어야겠다.

결국 실제적인 업무 능력의 향상과 국제화를 위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을 평가할 수 있는 다면적 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시험에서 완전히 감당하기에는 분명 한계적이다. 또한 필기시험과 달리 실기시험과 태도의 평가는 객관성 문제를 가져온다. 이를 위해선 무엇을 평가하는지 기본 철학과 목표가 명확히 설정 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당

연히 평가해야 할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각 분야의 문항 개발 및 심의기구가 설립될 필요가 있으며 평가 전문가 중심의 시스템 도입이 요구된다. 또한 일회의 면허시험에서 벗어나 취득 후에도 면허관리 평가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위한 사후 관리제도가 필요하다[15]. 따라서 학교평가 내용과 방법의 개선을 통해 치위생과정과 현장임상실습 프로그램의 관리운영체계를 구체화하여 의료의 질 확보를 위한 치과위생사 실무과정 제도를 확립시킴으로서 국가시험과 함께 학교평가의 방법과 내용을 개선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전문학사 학위과정과 학사 학위과정의 교육과정 요소에 대한 인식 비교 결과 교육내용조직요소를 제외한 전반적인 요소에서 학사학위 과정보다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학사 학위과정에서는 지적능력 개발, 도덕적·윤리적 측면, 자아실현의 요소를 보다 강조하고 있는 반면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는 직업교육적 측면을 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제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나 교육내용의 선정, 교육내용 조직 요소에 있어서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학사 학위과정은 특히나 교육평가 요소에 있어 전반적으로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차후 교육과정 개선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학사 학위과정에서는 치위생학의 가치정립에 우선 두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계속적으로 교육내용 선정, 조직, 평가에 정립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2002년 개설을 시작으로 급증된 학부과정의 신설과 전문대학의 일반대학으로의 전환 등 급변하는 여러 상황의 교육환경과 학습자환경이 빚어낸 결과로 예측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계속 되어져야 하겠다.

References

- [1] S. K. Chung, J. H. Park, "A Study on the Integrated Curriculum Approach to Instruction Based on Constructivism", the collection of thesis, Dong-A Univ., 14, pp.37-57, 2004.
- [2] J. K. Kim, "Special school curriculums and e-books", the collection of data for the 20th conference of special education experts, the Korea Special Education Association, pp.77-86.
- [3] H. S. Kwon,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dental hygienist educational system", Graduate of Seoul National Univ., 1997.
- [4] K. W. Jang,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e", the collection of thesis, Jinju Health College, 18(1), pp.203-220, 1995.
- [5] J. S. Yang, "A Study on th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Dental Hospital by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Acad Oral Health, 24(3), pp.205-217, 2000.
- [6] I. S. Park, "A Study of Curriculum for Improving Vocational Competence of Dental Hygienists",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of Dankook Univ., 2004.
- [7] A. L. Kim, et al., "A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a Problem-based Learning Package for Patients with Perception-Adjustment Disorder",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13(3), pp.385-396, 2000.
- [8] Y. S. Cho, "Comparison of Curriculums of Dental Hygiene Education Programs for B.S Degree", J Dent Hygiene Science 5(4), pp.251-258, 2005.
- [9] H. S. Kwun, "Development of a Standard Curriculum Model for the Dental Hygienist Education", Graduate of Kyungnam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1999.
- [10] D. S. Park, H. J. Hong, "Curriculum & educational evaluation", Seoul: Mooneumsa, pp.25-38, 2008.
- [11] M. Y. Hwang, "The Development of an Intergrated Curriculum Model for Dental Hygienist",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of Sungshin Univ., 2000.
- [12] Y. R. Jung,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PBL Package Focusing on the Roles of Dental Hygienists", Graduate of Konkuk Univ., 2003.
- [13] H. J. Han, "A study of Dental Hygienics Professors Perception on the Intergrated Curriculum for Dental Hygienist", Graduate of Konkuk Univ., 2004.
- [14] E. G. Kim, et al., the dental hygiene standardization research team, joint research by the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and the Korean Association of Dental Hygiene Professors, 2005.
- [15] D. S. Ahn, et al., "A study o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national examination", the National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Board., pp.240-257, 2005.
- [16] K. A. Sirotnik, "What goes on in classroom? Is this the way we want it?. In: Beyer LE, Apple MW. The Curriculum". 2ne ed. New York: SUNY Press, pp.58-76, 1998.
- [17] R. W. Tyler,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49.
- [18] H. Taba, "Curriculum development: Theory and

- practice”, New York: Harcourt Brace and Jovanovich, 1962.
- [19] P. H. Phenix, “The disciplines as curriculum content, In: Harry Passow A. Cuaeiculum Crossroads”, New York: Teachers Colleges Press, pp.57-71, 1962.
- [20] R. S. Zais, “Curriculum: principle and foundation”, New York: Thomas Y. Crowell, 1976.
- [21] A. C. Ornstein, F. P. Hunkins, “Curriculum: foundations, principles, and issues prentice hall”, New Jersey: Englewood Cliffs, 1988.
- [22] S. H. Lee, “Curriculum Development: Theory into Practice”, Seoul: Hakjisa, 2004.
- [23] C. W. Lee, “Professionalism of Dentists and their Recongnition on the Changing Occupational Environments”, Graduate of Keimyong Univ., 1997.
- [24] J. Y. Bae, “A Study on Dental Hygiene Students' Consciousness about Course Education”, Dental research, 62(2), p.69, 2000.
- [25] S. H. Shin, “Attitude of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to major and the direction of their career”, the collection of thesis, Jinju Health College, 20(1), pp.117-139, 1997.
- [26] J. S. Lee, “A Comprehensive Study of Vocational Education Curriculum”, KRIVET, 2005.
- [27] Y. S. Cho, “Clinical Dental Hygiene Education and Practice based on Dental Hygiene Process”, J Dent Hygiene Science 11(3), pp135-154, 2011.
- [28] K. S. Han, “A study on the vocational awareness of dental hygiene students”, the thesis collections of Gachungil Univ., 29, pp.477-489, 2001.
- [29] M. K. Lee, S. B. Won, “Vocational curriculum and evaluation”, Seoul: Kyoyookbook, 2000.
- [30] C. G. Son, “Curriculum & educational evaluation”, Seoul: Taiyoung, 2006.
- [31] S. H. Kim,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dental hygiene curriculum model focusing on dental hygienist roles”,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of Dankook Univ., 1998.
- [32] K. H. So, “Curriculum development: major issues and new approach”, Seoul: Kyoyookbook, 2005.

양 승 경(Seung-Kyeong Yang)

[정회원]



- 2005년 2월 : 단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10년 2월 : 단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대구산업정보대학 치위생과 교수

<관심분야>
치과위생사 양성 교육과정

권 순 복(Soon-Bok Kwon)

[정회원]



- 1995년 2월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보건행정학(행정학석사)
- 2010년 8월 : 단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교육학박사)
- 1996년 3월 ~ 현재 : 경북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관심분야>
포괄치위생과정